

# 이재명 대표 조사 마무리... “증거 제시 못해, 왜 불렀는지...”

### ‘대북 송금 의혹’ 2시간 만에 종료...檢, 빠르면 14~15일 영장 청구 전망 민주당 내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의총서 ‘단식 중단 요구’ 전달키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차 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검찰에 2차 출석, 1시간 50분의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4시40분만에 검찰을 나섰다. 검찰 출석 당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는 지 보겠다는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를 제시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수원지방법 검찰청 후문 앞에 도착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지 한 번 보겠다”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수 백 번 압수수색하고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무리 불려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지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대북사업 관련 공문을 읽지도 않고 결재만 했느냐. 승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직후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오늘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18, 20, 21일로 예정됐고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르면 14~15일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지만 단식 여파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진명(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올라오면 당근(당연히) 부결”이라며 “최악의 경우 만약에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된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 프레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대응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13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여

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단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내건 단식의 진정성을 통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단식 중단 요구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도부가 논의해 소속 의원들의 바람을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양향자, 국힘 방문해 “이재명 만나시라”

### ‘한국의희망’ 창당 인사...김기현 “해결법 아냐” 거절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가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14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을 권유했지만 김 대표는 거절했다.

양 공동대표는 이날 창당 인사차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로 김 대표를 예방했다.

양 대표는 김 대표에게 “지금 행정부 강자나 입법부 강자는 약자나 소수의 말을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려 한다”며 “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나서야 할 때다. 김 대표님이 당장이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나서 들어 달라.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는 야당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많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켜버리고 국정과제 현안을 무작정 발목잡기하고 있어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에게 비공개라도 만나고 공개 TV 토론도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만남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며 이 대표를 찾아갈 뜻이 없음을 밝혔다.

양 대표는 김 대표 예방 직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으나, 이 대표가 자리에 없어 만남은 불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文 전 대통령, 박민식 장관 고소

### ‘부친 친일파 발언’ 사자 명예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

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 시정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강도독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윤재갑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11일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에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크다. 특히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